‘목포의 눈물’ 이난영을 만난다

옛 호남은행 목포지점 리모델링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7월 개관
미디어아트·전시·행사·회의 등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개관 예정지인 옛 호남은행 목포지점 건물. 〈목포시 제공〉

옛 호남은행 목포지점 건물을 활용한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이 오는 7월 개관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지난해 호남은행 목포지점을 매입해 원형 회복 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등 각계 전문가 검토와 회의, 현장 조사를 수십회 걸친 끝에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콘텐츠 구성안을 마련했다.

구성안은 건축 원형을 살리는 열린 공간 구성에 중점을 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1층은 전시물 나열을 지양하고, 목포에서 현존 유일한 근대 금융계 건물로서의 특성, 호남 인사들이 설립한 순수 민족자본 은행이라는 상징성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여백과 개방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출한다.

또 지금껏 목포에 없었던 최신 미디어아트를 통해 새로운 볼거리를 선보이고, 군더더기를 뺀 공간에서는 기획 전시, 소규모 행사, 회의 등의 진행이 가능하다.

2층 테마는 대중음악으로서 목포와 한국 대중음악의 각별한 인연을 선보인다.

목포는 시와 관련된 대중가요가 110곡 이상으로 ‘목포의 눈물’로 잘 알려진 이난영, 최초 걸그룹인 김시스터즈 등 K-Trot(트롯) 발전의 초석을 놓은 별들을 배출한 도시다.

시는 이 같은 자산을 소재 삼아 대중음악이 생겨나고 유행했던 스토리와 콘텐츠들을 관람·체험할 수 있으며, 매년 명예 대중음악가를 선정해 다양한 기획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별관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앵커시설이 될 안내 플랫폼과 휴게 공간, 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가 운영돼 시민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지원한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진도~제주 90분만에…산타모니카호 5월 7일 취항

여객 606명·승용차 86대 수송
연중 하루 왕복 2회 운항 예정

진도에서 제주까지 90분대에 주파하는 항로가 개설된다.

목포~제주 항로 연안여객선사 씨월드고속훼리(주)(회장 이혁영)는 오는 5월 7일 진도항에서 제주를 연결하는 ‘산타모니카호’〈사진〉 신규 취항에 앞서 6일 오후 취항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조 쾌속카페리선 ‘산타모니카호’는 정부의 연안여객선 현대화 정책에 부흥하고자 세계적으로 유수한 쾌속카페리 조선소인 호주의 INCAT 사(社)에서 건조했다. 길이 75.7m, 너비 20.6m, 높이 21m, 국제톤수 3500t 규모로 606명의 여객과 86대의 차량(승용차 기준)을 싣고 최고 42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는 초쾌속카페리선이다.

새로운 제주 뱃길이자 육지에서 제주를 연결하는 국내 최단거리·최단시간 항로인 진도~제주는 직항운항 시 9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산타모니카호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다양한 형태의 편안하고 고급화된 좌석 구비로 기존과는 차별화된 방침으로 운영된다.

마치 항공기와 같은 최고급 좌석인 비즈니스석,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패밀리석, 다도해의 경관을 바라 볼 수 있는 오션뷰석 등의 좌석제가 운영된다. 선내에는 파리바게트 등의 편의시설도 운영될 예정이다.

또 풍랑주의보에도 운항이 가능해 그동안 날씨로 제한되던 추자도의 관광(성지순례 및 낚시, 올레길 등)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민속문화예술특구 진도에는 운림산방 등 유명 관광지와 케이블카, 대형 리조트, 해상유람선 등의 다채로운 즐길거리와 먹을거리가 즐비해 제주 관광과의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진도~제주 항로는 매월 첫 번째·세번째 목요일 정기휴항일을 제외하고, 연중 일일 왕복 2회로 운항될 예정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광군,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사업 공모 선정

음성인식 기반 스마트 AI 노인돌봄시스템 개발 구축 및 실증

영광군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 주관한 ‘2022년 지역SW서비스사업화 사업’ 공모에 ‘음성인식기술 기반 스마트 AI 노인돌봄시스템 개발 구축 및 실증’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현안을 정보통신소프트웨어 서비스로 해결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와 목포대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전남도와 영광군이 실증 지자체로 참여한다.

총사업비는 7억3250만 원으로 국비 3억 원과 도비 8600만 원, 군비 2억 원, 민간자본 1억4650만 원 등이다. 군은 커뮤니티케어 중심시설인 경로당을 양방향 영상장비를 구축해 소통을 강화하고 생활정보, 행정정보, 고향사랑 기부제를 연계할 수 있는 정보전달 플랫폼 서비스와 음성인식 시스템을 통해 어르신 안부와 노인문제 접근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딥러닝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 과제로 선택했다. 이를 통해 비대대면 화상회의 기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스마트) 경로당의 주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장남종 노인가정과장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올해 우리군의 핵심 사업인 지능형(스마트) 경로당 추진에 한발 더 나아갔다”며 “어르신에게 친숙한 공간인 경로당을 통해 ICT 기술 기반 소통과 즐거움을 나누고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1월부터 노인복지관, 영광군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초고령시대 대비 노인복지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 경로당을 추진하고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해남 어린이들과 ‘나무늘보 릴렉스’의 모험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뮤지컬, 5월4일 해남문예회관

해남군이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어린이 뮤지컬 ‘나무늘보 릴렉스’〈사진〉를 선보인다. 5월 4일 오후 3·7시,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나무늘보 릴렉스’는 ‘가방 들어주는 아이’,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 등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 고정욱의 동화를 뮤지컬화한 작품이다.

평화로운 아마존에 사는 나무늘보 릴렉스가 마법사가 사는 아프리카 시티를 모험하며 빠르기만 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님을, 자신이 진정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느림의 미학을 담았다.

푸르름이 가득한 아마존 시티를 무대로 옮겨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동물 캐릭터들의 등장과 아프리카 악기 잼베, 칼린바의 신나는 연주, 아크로바틱, 저글링이 더해진 눈과 귀가 즐거운 볼거리 가득한 공연을 선보인다.

예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네이버를 통해 진행된다. 1인당 4매까지 예매 가능하고, 관람료는 3000원이다. 24개월 미만의 유아는 등본, 의료보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나, 별도의 좌석이 배정되지 않는다. 또한 공연 당일 예매권 취소, 변경, 환불 등이 불가하니 예매시 유의해야 한다.

군은 공연장 외부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유아용 쿠션을 비치하는 등 편하고 즐거운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맞춤형 공연을 준비한 만큼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안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협약

사업비 200억 투입 친환경 바나나 재배 친환경 급식 납품

신안군이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최근 ‘2022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일괄위·수탁 협약을 체결,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이 사업은 군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일대 9ha 면적에 사업비 200억원(국비140억, 도비18억, 군비42억)을 투입 진행한다.

실시설계와 공사업체 선정이 마무리 되는데로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온실신축공사가 최종 마무리되면 친환경 바나나를 재배해 관내 친환경 급식으로 우선 납품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온실을 비롯 체험학습장, 선별시설, 스마트팜 지원센터, 저장시설 등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신안군을 시설원예의 새로운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친환경 바나나를 생산해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마친 청년농들이 적정 임대료만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온실을 구축, 청년의 스마트팜 진입과 안정적 정착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